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장희숙 한건환 전우정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년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의 중·고·대학생들(N=632)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IPPA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Bem의 BSRI에 기초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감소 패턴은 남녀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녀 모두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였고 미분화의 개인들이 부모 양자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들이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보다 동성부모는 물론 이성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선호하고 고정관념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은 결과로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요어: 애착 · 성역할 정체감 · 양성성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중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Haigler와 Day 그리고 Marshall(1995)은 양성적 그리고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집단이 남성적 그리고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

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동성 성유형화된)은 동성의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과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교차 성유형화된)은 이성의 부모에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

할 것이라는 그들의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Haigler 등의 연구를 반복한 Forbes와 Adams-Curtis(2000)는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학생들보다 어머니를 더 가깝게 지각하였고,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학생들보다 아버지를 더 가깝게 지각함으로써 Haigler 등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한 남녀 대학생들은 이성의 부모에게만 높은 애착을 나타낼 뿐 동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높은 애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Haigler 등의 연구에서는 양성적 개인들이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보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Forbes와 Adams-Curtis의 연구에서는 양성적 개인들이 이성의 부모에게만 높은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이성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양성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애착과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Bowlby(1969)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에 기초한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영어가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을 기초로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형성한 개인적 신념이다. Bowlby에 의하면, 영어는 양육자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에 대해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세트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작동모델이 된다. 그 예로서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어들은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신념과 함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신뢰가능한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

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긍정적 신념을 형성하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아기에 형성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기관련개념은 물론 타인관련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후의 자기지각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지각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로서 부모에게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과 긍정적 자기개념, 발달된 정체감을 지니고 있고 더 큰 심리적 안녕과 인생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장희숙, 1997; McCormick & Kennedy, 1994; Lapsley, Rice, & Fitzgerlard, 1990; 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의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형성(Fagot, 1997; Ellicker, Englund, & Sroufe, 1992)은 물론 성장한 이후의 데이트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Kirkpatrick & Davis, 1994; Hazan & Shaver, 1987).

한편, 성역할 정체감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자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와 함께 내가 어떤 성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기관련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이다. 그 증거로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자기개념이나 자기존중감 혹은 자아정체감과 높은 상관이 있다(Holt & Ellis, 1998; 정진경, 1990). 여기서 성역

할 정체감이란 각 개인이 행동에 나타내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말한다 (장희숙, 2000).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적 특성만을 그리고 여성은 여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Bem(1974)은 각 개인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위 양성성 이론을 제안하고 도구성과 표현성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가지 유형(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그리고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구분하였다. Bem과 그 후속연구자들(Holt & Ellis, 1998; Spence, Helmreich & Stapp, 1975)은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반면, 성역할에 의해 분화되지 않은(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의 개인들은 양성적 개인들보다는 덜 적응적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자기관련개념의 핵심요인인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개인의 자기관련개념에 영향을 주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추론으로 생각된다. 원래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로서 Bowlby(1969)에 의해 제안되고 Ainsworth와 그 동료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에 의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개념이다. Bowlby는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부모의 보호를 불러일으키고 영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진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의해 아동의 애착양식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애착이나 애착관계는 지속적이고 보통 상황적 여건과는 무관하나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유기체가 성숙함에 따라 그리고 활성화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Bretherton, 1992).

그렇다면 주양육자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청년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Haigler 등(1995)의 연구에 포함된 모든 남녀 대학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었고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3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을 연구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도 남녀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고 연령증가와 함께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게 유지되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희숙(1997)은 남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으나 학년증가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변화패턴은 남녀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청년후기에 이르러 부모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 (Kenny, 1987), 청년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에 걸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동안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 것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감소할 것이며 남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 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함께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때문에,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과 유사하게 성역할 정체감 또한 개인의 적

옹과 높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소유자들이 가장 적응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Haigler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남녀 모두 양성적인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미분화의 개인들이 부모 양자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형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시에 Forbes와 Adams-Curtis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들과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Haigler 등의 연구나 Forbes와 Adams-Curtis의 연구결과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도 함께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녀 모두 연령에 따른 감소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3. 양성적 개인들이 다른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미분화 개인들은 부모에 대한 가장 낮은 애착을 나타낼 것이다.
- 가설 4.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과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인문계 남녀 중고등학생과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표집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이므로 어머니나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부재한 학생과 반응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중학생 170(남: 117명, 여: 53명)명, 고등학생 205(남: 103명, 여: 102명)명 그리고 대학생 257(남: 141명, 여: 116명)명이었다. 검사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담임선생님들에 의해 수업시간에 실시되었고 대학생들에게는 심리학개론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중학생 12.83($SD=0.45$)세, 여자 중학생 12.73($SD=0.48$)세, 남자 고등학생 15.75($SD=0.70$)세, 여자 고등학생 15.79($SD=0.72$)세, 남자 대학생 19.57($SD=1.88$)세 그리고 여자 대학생 19.22($SD=1.52$)세였다. 검사실시를 위해 중고등학생들은 약 30-40분 그리고 대학생들은 약 25-30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측정 도구

애착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문항 중 어머니문항과 아버지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원래의 IPPA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문항과 동년배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검사를 활용하였다. Paterson 등의 척도는 원래의 IPPA를 활용하여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 25문항씩의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IPPA는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소외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하위척도들을 무시하고 전체점수로 계산하였다. Paterson 등(1994)의 연구에 나타난 Cronbach α 로 계산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 .94였으며 이 연구에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89와 .91이었다.

성역할 정체감 검사

Bem(1974)이 개발한 BSRI(Bem Sex Role Inventory)에 기초하여 정진경(1990)이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0개의 성격특성문항들을 포함하는 이 검사는 20개씩의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 그리고 궁정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궁정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에서 .91까지 범위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특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상에 응답해야 한다.

채점시 남성성 점수는 남성성 문항 20개의 평균값이고 여성성 점수는 여성성 문항 20개의 평균값으로서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각기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각 응답자들은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즉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양성적 집단,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남성적 집단,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여성적 집단 그리고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미분화 집단이 그것이다. KSRI의 모체인 BSRI는 남녀의 성역할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뿐아니라 양성성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심리학 및 여러 관련분야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개발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도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Holt & Ellis, 1998).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변화경향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

표 1.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애착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M(SD)	M(SD)	M(SD)
남	어머니에 대한 애착	3.49(0.46)	3.36(0.50)	3.53(0.41)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8(0.54)	3.25(0.56)	3.36(0.44)
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	3.65(0.46)	3.59(0.43)	3.54(0.38)
	아버지에 대한 애착	3.46(0.54)	3.36(0.50)	3.36(0.51)

과 같이 먼저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계산하였다.

표 1을 바탕으로 연령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F_{(1,626)}=4.01$, $p<.05$)와 성의 주효과($F_{(1,626)}=12.58$, $p<.001$)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남자 고등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가 여자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그리고 남자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남녀 대학생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과 성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변화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를 분리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곡선경향을 나타내었고($F_{(1,626)}=7.70$, $p<.001$), 여학생들은 부적기울기의 감소적 경향을 보여주었다($F_{(1,626)}=2.70$,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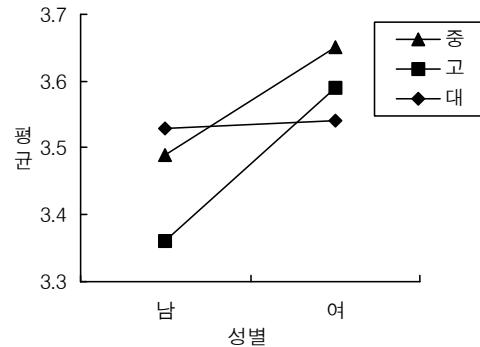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의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과 그림 2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교 시기까지 유의하게 감소하고 대학연령에서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선적인 감소적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남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연령에서 여학생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비록 횡단비교라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연령증가와 함께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남학생들의

표 2.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변량분석 및 추세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연령	2	0.747	0.373	1.90
성	1	2.467	2.469	12.58***
연령 X 성	2	1.574	0.787	4.01*
오차	626	122.882	0.196	
전체	631	127.032		
추세분석				
남학생에서의 직선경향	1	0.123	0.123	0.59
남학생에서의 곡선경향	1	1.623	1.623	7.70***
여학생에서의 직선경향	1	0.462	0.4624	2.70 $p<.10^†$
여학생에서의 곡선경향	1	0.0002	0.0002	0.001

[†] $p<.10$ * $p<.05$, ** $p<.01$, *** $p<.001$ 이하 통일함

표 3.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변량분석 및 추세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연령	2	1.564	0.7821	2.78*
성	1	0.102	0.102	0.37
연령 X 성	2	1.2431	0.621	2.21
오차	626	175.925	0.281	
전체	631	178.472		
<u>추세분석</u>				
직선경향	1	1.202	1.202	4.28*
곡선경향	1	0.594	0.594	2.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V자 형태의 곡선적 경향을 보여 감소와 회복의 패턴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애착과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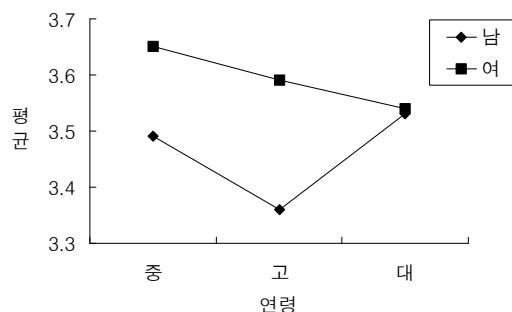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변화경향

표 3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연령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연령의 주효과 ($F_{(2,626)}=2.78$, $p<.05$)만 유의하여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연령에 따른 변화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 및 그림 3과 같이, 유의한 직선경향($F_{(1,626)}=4.28$, $p<.05$)을 나타내었다. 즉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연령까지 유의하게 감소하고 고등학교 연령과 대학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변화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할 가능성성이 있기는 하지만, 감소패턴은 남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들은 감소경향을 그리고 남학생들은 감소와 회복의 V자형 패턴을 나타내는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고등

표 4. 남녀 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차이검증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차이점수	표준오차	t값
남학생	어머니에 대한 애착 3.475(0.463)	0.135	0.0251	5.374***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40(0.515)			
여학생	어머니에 대한 애착 3.584(0.421)	0.247	0.0283	8.716***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37(0.553)			

표 5.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괄호안은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어머니에 대한 애착	3.69(0.40)	3.53(0.40)	3.47(0.48)	3.35(0.43)
아버지에 대한 애착	3.48(0.54)	3.31(0.48)	3.33(0.54)	3.18(0.49)

학교연령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가설 1과는 상이하게 연령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는 남녀에 따라 감소패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 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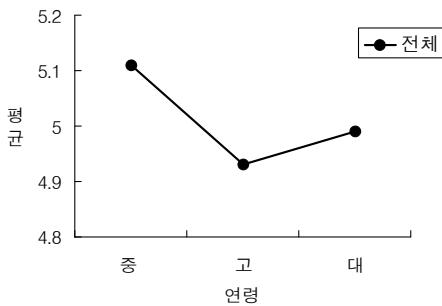


그림 3. 연령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경향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비교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간의 차이점수를 계산하여 짹진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학생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양성적 집단 대 나머지 세 집단 및 미분화 집단 대 나머지 세 집단의 차이 비교

양성적 집단과 나머지 세집단 그리고 미분화 집단과 나머지 세집단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자들을 Bem의 중앙치분류방법을 사용하여 네가지 성역할 정체감 집단으로 구분하고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3)=5.75$, $p>.05$)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남녀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5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5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적 집단과 나머지 세 개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 및 미분화 집단과 나머지 세 개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의 어머니

표 6.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양성적 집단 대 나머지 세집단	1	8.075	8.075	44.09***
미분화 집단 대 나머지 세집단	1	5.791	5.791	31.62***
오차	628	115.033	0.183	
전체	631	127.032		

표 7.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양성적 집단 대 나머지 세집단	1	6.113	6.113	22.72***
미분화 집단 대 나머지 세집단	1	5.021	5.021	18.66***
오차	628	168.990	0.269	
전체	631	178.472		

에 대한 애착점수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과 표 7에 의하면, 양성적 집단은 다른 세 개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F_{(1,628)}=44.09$, $p<.001$)와 아버지($F_{(1,628)}=22.72$, $p<.001$)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고 미분화 집단은 다른 세 개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F_{(1,628)}=31.62$, $p<.001$)와 아버지($F_{(1,628)}=18.66$, $p<.001$)에 대해 유의하게 낮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연구의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관련되어 있음을 물론 남녀 모두 양성적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부모 양자에게 가장 낮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과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동성유형화된 개인과 교차성유형화된 개인들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과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는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적 남성과 여성적 여성의 애착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_{(1,624)}=4.30$, $p<.05$), 남성적 여성과 여성적 여성의 애착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624)}=4.66$, $p<.05$). 다시 말하면 여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 성유형화된 여성들이 교차 성유형화된 여성이나 남성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

표 8. 네 가지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남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속은 표준편차)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남	어머니에 대한 애착	3.50(0.45)
	아버지에 대한 애착	3.44(0.43)
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	3.44(0.45)
	아버지에 대한 애착	3.24(0.47)
	어머니에 대한 애착	3.42(0.52)
	아버지에 대한 애착	3.60(0.36)
	어머니에 대한 애착	3.17(0.62)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8(0.48)

표 9.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1) 남성적 남성 대 여성적 남성	1	0.087	0.087	0.49
2) 남성적 남성 대 남성적 여성	1	0.139	0.139	0.78
3) 남성적 남성 대 여성적 여성	1	0.352	0.352	1.96
4) 여성적 남성 대 남성적 여성	1	0.009	0.009	0.05
5) 여성적 남성 대 여성적 여성	1	0.771	0.771	4.30*
6) 남성적 여성 대 여성적 여성	1	0.836	0.836	4.66*
오차	624	111.918	0.179	
전체	631	127.032		

미한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표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성적 남성과 여성적 남성($F_{(1,624)}=4.44$, $p<.05$), 남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F_{(1,624)}=6.89$, $p<.01$) 그리고 남성적 여성과 여성적 여성($F_{(1,624)}=4.20$, $p<.05$)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적 남성들이 여성적 남성들보다, 남성적 남성들이 남성적 여성들보다, 그리고 여성적 여성들이 남성적 여성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 성유형화된 남성과 동성 성유형화된 여성들이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와 표 10 및 그림 4를 참조하여 요약하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이면서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거나 여성이면서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이 남성이면서 여성적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였고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한 여성들이 여성이면서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한 개인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어 이 연구의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남성적 남성과 여성적 여성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그림 4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녀의 성은 물론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성장한 소위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들이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강한 애착을

표 10.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직교비교한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1) 남성적 남성 대 여성적 남성	1	1.183	1.183	4.44*
2) 남성적 남성 대 남성적 여성	1	1.859	1.859	6.98**
3) 남성적 남성 대 여성적 여성	1	0.116	0.116	0.44
4) 여성적 남성 대 남성적 여성	1	0.118	0.118	0.45
5) 여성적 남성 대 여성적 여성	1	0.575	0.575	2.16
6) 남성적 여성 대 여성적 여성	1	1.118	1.118	4.20*
오차	624	111.918	0.266	
전체	631	127.032		

형성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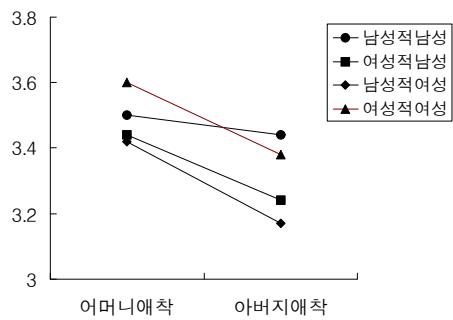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

논 의

이 연구는 청년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연령에 따른 감소를 보일 것이며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양성적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다른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할 것이고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남성적 남성과 여성적 여성 및 여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Paterson, Field 및 Pryor(1994)의 애착검사 중 어머니 문항과 아버지

문항이 사용되었고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Bem의 BSRI(Bem Sex Role Inventory)에 기초하여 정진경(1990)이 제작한 한국성역할검사(KSRI)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1에서의 가정과는 다르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여학생들은 부적 기울기의 감소적 경향을 그리고 남학생들은 V자형의 곡선경향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는 남녀 모두 중학교 연령에서 고등학교 연령까지 감소하고 고등학교 연령과 대학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냄으로써 이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모두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였고 미분화의 개인들이 부모 양자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나타냄으로써 그리고 동성 성유형화된 남성과 여성들이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보다 동성부모는 물론 이성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가설 3과 4가 지지되었다. .

이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변화경향은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게 유지되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만 약화된다는 Paterson, Field, & Pryor(1994)의 연구는 물론 청년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Kenny(1987)의 연구와도 단지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이다. 물론 Paterson 등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만을 연구하였고 Kenny는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설정이다. 한편 한국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97)은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

한 애착에서 직선적 감소경향을 그리고 남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연령에서 회복되는 V자형의 변화양상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이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종단적 연구 설계만이 연령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변화 경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로운 것은 서구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부모에 대해 동일한 애착패턴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유의한 성차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와는 상이한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서 아들과 딸을 다르게 양육한 결과에 기인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는 아동의 주된 양육자로서 가장 선호되는 애착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였다(Forbes & Adams-Curtis, 2000; 장휘숙, 1997; Haigler 등, 1995; Lytton, 1980).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양성적 개인들이 나머지 세 개의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고 미분화 집단은 나머지 세 개의 집단보다 부모 양자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지니고 있어 이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aigler 등의 연구는 물론 Forbes & Adams-Curtis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들이기도 하다.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개인의 자기존중감은 물론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과 연결되어 있고(장휘숙, 2002; Kenny & Rice, 1995; Lapsley, Rice & RitzGerald, 1990;

Armsden & Greenberg, 1987),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 또한 자기존중감을 포함하여 다양한 적응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Orlofsky & O'Hern, 1987; Bem, 1975), 양성적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나타낸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애착이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위한 선행변인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성역할 정체감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가정대로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과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인 소위 동성 성유형화된 개인들과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인 소위 교차 성유형화된 개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이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고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들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남성이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이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여성들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어 동성 성유형화된 남성과 여성들이 동성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이성부모에 대해서도 더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적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이 동성부모와 이성부모 모두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교차 성

유형화된 개인들이 이성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인다는 Forbes와 Adams-Curtis(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나 교차 성유형화된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의 거부나 온정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는 Orlofsky(1979)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아들과 딸에게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적 남아와 여성적 여아들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제공받고 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부모에 대해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가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양자의 관계는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치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연구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변화는 어디까지나 연령집단간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래에는 종단적 설계나 계열설계법과 같은 단기종단적 설계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애착측정을 자기보고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치분류방법에 의한 성역할 정체감의 구분도 문제가 있어 이 점도 또 다른 제한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IPPA를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를 계산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양식을 구분하여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인간발달과정에서 애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4권 1호, 88-106.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 15, No. 1
- 장휘숙 (2000).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Vol. 5, No. 1, 82-92.
- Ainsworth, M. D., Blehar, M. I.,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5, 759-775.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Fagot, B. I. (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 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89-499.
- Forbes, G. B., & Adams-Curtis, L. E. (2000). Gender role typing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2), 258-260.
- Haigler, V. F., Day, H. D., & Marshall, D. D. (1995).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role identity. *Sex Roles*, 33, 203-220.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olt, C. L., & Ellis, J. B. (1998). Assessing the current validity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Sex Roles*, Vol. 39, No. 11/12, 929-941.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7.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561-565.
- Lombardo, J. P., & Kemper, T. R. (1992). Sex role and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 103-113.
- Lytton, H. (1980). *Parent-child interaction*. New York: Plenum.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Orlofsky, J. L. (1979). Parental antecedents of sex-role orientation in college men and women. *Sex Roles*, 5, 495-512.
- Orlofsky, J. L., & O'Heron, C. A. (1987). Stereotypic and nonstereotypic sex role trait and behavior orientations: Implications for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34-1042.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5), 899-914.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Attachments to Parent and Gender-Role Identity

Hwee-Sook Jang Gun-Hwan Han Woo-Jung J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role identity in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ce. The IPPA and KSRI were given to 632 participants. Across all participants, attachment to mother was higher than to father, but different age patterns in parental attachment were exhibited according to gender. And Androgynous individual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arental attachment and undifferentiated individuals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parental attachment than any other gender-role identity groups. Also same-sex typed individual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ttachments to the same-sex and the opposite-sex parents than cross-typed individuals.

Keywords: attachment • gender-role identity • androgyny